

도란도란

꿈바당

“나도 꼬마작가! 내가 짓는 삼행시”

11월호에 이어서 이번 호도 친구들이 적은 삼행시를 올려봅니다 ^^
꿈바당 가족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감성이 모여 꿈바당 게시판에 예쁘게 수놓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은 “꿈바당” 삼행시를 감상해볼게요~~~

꿈 이 있고
바 다가 있는
당 님이 있는 제복자가 좋아요 ♡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을 꾸어다?
바 로 지금!
당 신이 이루어 지겠지.. ㄱㄱ

꿈 꿈바당은
바 바다처럼 넓은 자색과
당 당당하게 나아가는 용기와 자신감을 준다.

꿈 꾸는 자여!
바 다처럼 깊고 넓게 힘차고
당 차게 일어나라~.

꿈 을 이루면
바 대보다 큰행복으로 가득차
당 당해 끝까지 있어

꿈 꿈꾸는 꿈꾸 욕망아!
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당 당당하게 그렇게 커가는 거야

도란도란 꿈바당



꿈 꿈꾸는 꿈꾸 욕망아!
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당 당당하게 그렇게 커가는 거야

꿈 이 있고
바 다가 있는
당 님이 있는 제복자가 좋아요 ♡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을 이루면
바 대보다 큰행복으로 가득차
당 당해 끝까지 있어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을 이루면
바 대보다 큰행복으로 가득차
당 당해 끝까지 있어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 꿈꾸는 도서관
바 바다처럼 푸른 도서관
당 당하지 않고 뽀뽀한 도서관

꿈바당 책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주지도

번역가 오희



어린 시절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남쪽 시골에 살고 계신 친척집에 가서 지내다 오곤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마당에 놓여 있던 평상에 모기향을 피워두고 맛이 잘 든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 같은 과일을 먹으며 여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곤 했지요. 도심에서는 밤하늘을 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일까요? 그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무엇보다 사촌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보낸 여름방학이라 그런 거겠지요. 포도가 맛있게 익어갈 무렵이면 방학숙제를 챙겨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깝고 먼 곳을 향해 길고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번역을 하게 되면서는 방 안에 앉아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답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외국어로 쓰인 책을 받아 번역을 할 때에는 내가 책을 읽는 독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독자들에게 잘 소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읽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가본 적 없는 지역의 문화와 풍습도 알게 되고, 평소에 잘 몰랐던 분야에 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주지도’를 받아 보았을 때, 이번에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에 대한 기억과 과학수업 시간에 배운 지구와 태양계에 관한 상식이 전부였던 나는 우주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열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책을 읽을수록 그간 발전해 온 과학기술로 인해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크게 펼쳐볼 수 있는 우주지도 책에서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신화 속 이야기들을 떠올리기도 했고,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에 따른 별자리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같은 별자리를 두고도 다른 대륙과 문화권에서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지요. 국제천문연맹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참고하여 인증한 별자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88개의 별자리들을 공식 인증하였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더 크게 보면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우주에는 수천억 개 이상의 별이 모여 있는 은하들이 있는데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은하들이 수십억 개나 있으니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46억 년 전 가스 먼지와 수소가 중력으로 모여 구름을 만들고 원시별이 탄생하여 지금의 태양이 완성되고 태양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태양을 공전하는 여덟 개의 행성들과 그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들, 명왕성과 같은 왜소 행성과 소행성 등 수많은 천체가 태양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부지런한 우리 인간들은 태양계를 관찰하기 위해

꾸준히 무인탐사선과 로켓,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있지요.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을 탐사하는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8월 발사에 성공해 순항 중인 우리나라의 다누리 호도 달을 탐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우주 망원경으로만 관측이 가능한 심우주 속 은하단과 성운, 외계행성들을 생각하면 이처럼 무한한 우주 공간 안에 분명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주장에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컬러풀한 우주 사진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를 보며 사람들이 달에 머물고 화성에도 가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콩쿠르 무대에 오르기 전,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인 창백한 푸른 점을 생각하며 평정심을 가지려고 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들려준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작은 먼지와도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모두들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지내던 시기에, 컴퓨터 앞에 앉아 우주지도 책을 펼치고 가늠하기조차 힘든 시간과 공간 속을 상상하며 보냈던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작가소개 | 오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했어요. 학부 기간 중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탈리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된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옮긴 책으로 <로자 룩셈부르크>, <이스터섬의 거대한 전설 모아이>, <다윈원정대>, <글자줍는 개미>, <바나나 코고는 소리>, <아카바도라> 등이 있습니다



12월

사서 추천도서



눈아이

저자 안녕달 글 그림
출판사 창비
발행년도 2021
꿈바당 위치 유아 813 안19L (그림책방)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있던 눈덩이를 만났습니다
눈덩이에게 팔다리와 눈, 입, 귀를 만들어 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자

눈덩이는 '눈아이'가 되었습니다.

매년 차디찬 겨울바람이 느껴지기 시작 하면 기다려지는 것이 눈이다. 눈이 올 때 꼭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얼은 손을 호호 불며 뽁뽁 소리를 내며 추운지 모르고 열심히 함께 노는 주인공과 눈아이.

따뜻한 계절이 되어 눈아이가 사라지게 되어도 주인공은 그 친구를 기억하고 계속 찾는다.



국경

저자 구돌 글 / 해랑 그림
출판사 책읽는곰
발행년도 2021
꿈바당 위치 980-구25ㄱ (꿈자람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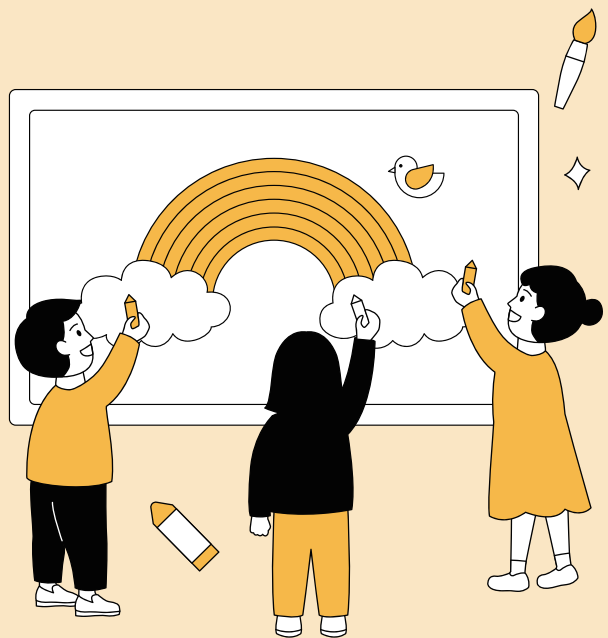
새와 물고기는 자유로이 넘나들지만 사람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
국경을 통해 바라본 세계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나라처럼 지내는 곳도 있지만 종교, 자원, 테러, 전염병 등의 이유로 국경 장벽이 생기기도 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책은 200개가 넘는 이웃 나라와 함께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세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꿈바당 프로그램

11월 프로그램



꼬마작가의 연필

대상 초등 1~2학년(16명)

기간 11월 6일~27일(일, 4회),
10:30~12:00

주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내용 나는 나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에 대해 탐구하고 기록하며 다양한 문학융합 활동하기



꼬마작가의 노트

대상 초등 3~4학년(16명)

기간 11월 5일~26일(토, 4회),
10:30~12:00

주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내용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 나에 대해 탐구하고 기록하며 다양한 문학융합 활동하기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대상 6~7세(15명)

기간 11월 6일~27일(일),
11:00~11:45

내용 어린이에게 적합한 주제의 영어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와 친숙해지기



2022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4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11월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함께해준 41개 기관 (작은도서관28,
동네책방3, 지역아동센터 8, 기타2) 과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들고 올해
찾아가지 못했던 지역까지 마을 곳곳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가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7개 주제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림책 창작교실



어린이 그림책 토론게임



성교육과 그림책



책놀이 꾸러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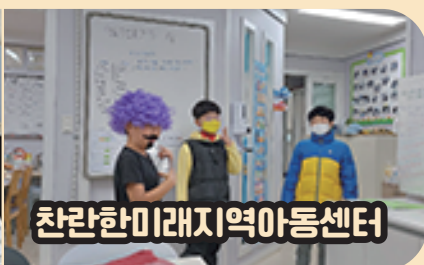
환경을 주제로한 도서와 책놀이
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7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합니다.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2022년 하반기 <꿈바당어린이독서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만든 작품들과 직접 만든 시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그리는 현택훈 시인의 [두점박이사슴벌레 집에 가면], 제주어로 된 시집인 박희순 시인의 [엄마는 못 들었나?], 두 권의 시집에서 직접 고른 시를 직접 쓰고 꾸미는 동안 미래의 멋진 작가를 꿈꾸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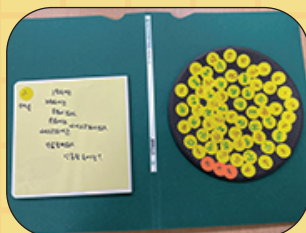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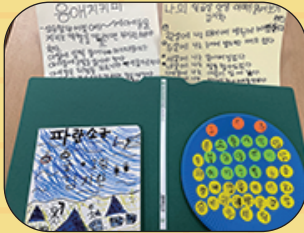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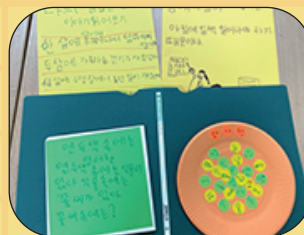
참여친구

1-2학년 강다은, 김연서, 김윤서, 김윤재, 김지호, 문서현, 문유정, 박민솔, 박준후, 변승원, 신민서, 신현준, 안시울, 진준혁, 현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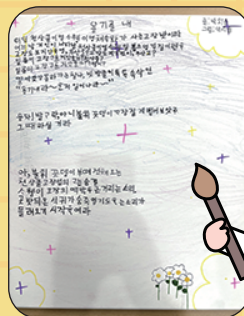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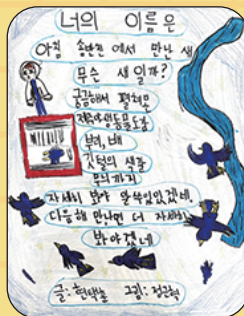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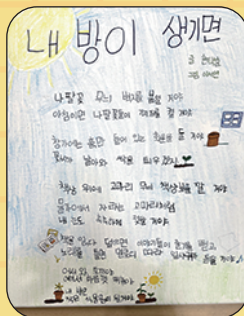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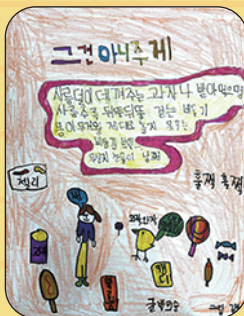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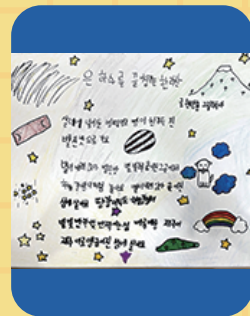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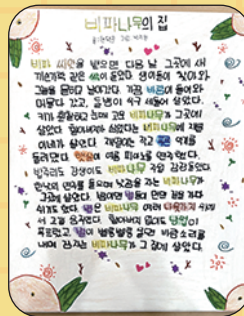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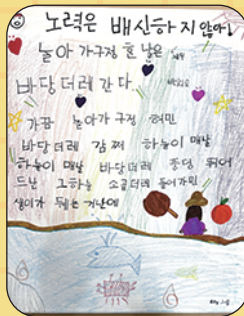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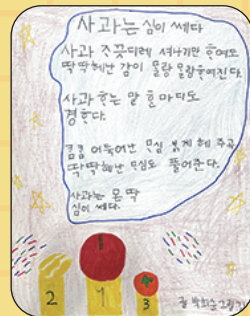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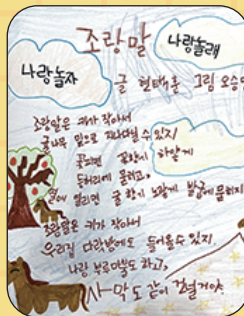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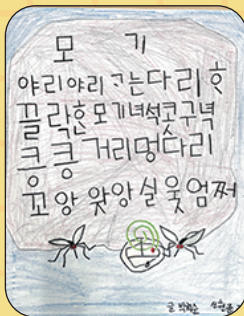
3-4학년 김유민, 김지환, 나수아, 문태건, 박지원, 변수진, 신지후, 양서현, 오승민, 이동빈, 이서연, 장아울, 정근혁

어린이 독서회-작품전시





어린이 독서회-시화전시





생태마을에서 만난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인 김도경

12월호를 장식해 줄 ‘함께같이도서관’은 조천읍에 위치한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입니다!! 정겹고 소박한 마을사람들이 오고가며 추억을 쌓는 공간...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볼까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마을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면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마을, 동백동산이라는 단어를 음미했다. 차창을 내리자 시내와 다른 체감온도가 느껴졌다. 겨울 문턱을 넘어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11월 끝자락의 날씨가 쌀쌀했다.

선흘1리 삼거리에서 차를 돌려 골목에 차를 세웠다. 맞은편에서 보는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 마당에는 세월을 짐작할 수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세계적인 생태마을에서 만나게 될 이 도서관이 궁금했다. 빠른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너 계단을 올라 2층 도서관으로 들어섰다.

도서관 지킴이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아담한 공간이 아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뒤편 밭에는 밀감이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정리된 책장을 둘러보는 안쪽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디지털 수업을 받고 있었다. 곧이어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신 학부모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낮을 가리는 나였지만 공통의 관심으로 나누는 이야기에 스스럼이 없었다.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은 1987년부터 마을 이장님과 마을발전위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지만 동백동산 습지센터가 발족되면서 사무실을 옮겨갔고, 도서관은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데 2017년 마을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지로 자부담해서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지금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서관에는 매주 마을 주부들이 독서모임을 갖는 '선홍서가'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책읽는 기린 어머들', 기타모임이 있고 어린이 우쿠렐레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마을 주부들의 친목은 물론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지원으로 '비비작작 미술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수업을 했고 운영강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역량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우수새마을도서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할 때가 많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듯 노력했을 과정을 짐작해보았다. 자부담으로 도서관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학부모님들의 의지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교 위기에 놓여있던 선홍분교가 건강생태학교로 거듭나고 선홍초등학교로 공식 승격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도서관 회장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회장님은 2018년 이 마을로 이주했다. 그해 선홍분교로 입학한 딸이 이제는 승격한 선홍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건강생태학교가 마음에 들어 정착했다는 회장님은 『제주에 왔고 제주에 살아요』를 다른 이주민들과 공저할 만큼 제주 사람보다 더 제주 사람처럼 제주를 좋아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동백동산의 보전과 가치, 사람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정신적인 생태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방과후에도 책을 가까이하고 친구들과 교감하며 소통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학부모님들의 노고가 마음에 와닿았다.

현재 이 도서관에서는 1학년, 2학년, 3~4학년, 6학년으로 반을 나누어 어린이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북클럽은 독서모임 동아리 주부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도 강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별로 책을 선정해서 읽고 책의 주제에 맞춰 글쓰기, 놀이, 발표, 토론 등 책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님은 아이들이 북클럽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책과 더 친해지고 삶의 자양분이 되길 바랐다.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오다가다 들리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다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정겹고 소박한 꿈이 거대한 희망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미 회장님 웃음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가을이
지나간 자리~~



알록달록 예쁘게 수놓아진 꿈바당 정원...

11월 한달은 빨강계 노랑계 물든 낙엽들로, 12월은 붉은 애기동백이 비밀스럽게 피었습니다 ^^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감싸여진 꿈바당 도서관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제3회 어린이작가 글짓기공모전 시상식

11월 26일 토요일에는 제3회 어린이작가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여행(시간, 공간, 사람 등 다양한 소재의 여행)"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2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17명의 친구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수상하게 된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도서관 복도에 전시 중입니다 :)



하반기

꿈바당학부모독서회

소식

10월부터 두 달 간 꿈바당학부모독서회가 진행되었어요! 2급 책놀이지도사 자격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독서회는 움직이는 종이인형극 패널시어터 활용하기, 잠자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팝업북 만들기 등 책을 통해 창작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학부모독서회 회원들의 작품들은 도서관 곳곳, 프로그램실에서 12월 동안 전시됩니다 :-)



하반기 꿈바당어린이독서회 소식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진행된 1-2학년반, 3-4학년반 어린이 독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독서토론, 발표, 창작활동 등 생각을 키우고 상상을 더하는 활동으로 재미있게 책과 친해졌지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오밀조밀 만들고, 예쁘게 쓰고 그린 작품들을 프로그램실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커진 만큼 마음도, 키도 쑥쑥 자란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12월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및 전시 안내

12월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은 '우주 여행'입니다. 그림책 속에 담긴 우주의 이야기들은 나의 생각과 상상을 더 크게 해 줍니다. 머나먼 우주로의 여행, 우리 함께 떠나보아요~ ^^

